

# 대구 확진자 30명, 광주서 모두 퇴원

## 마지막 남은 한 가족도 완치돼 대구로 돌아가 재난상황 지자체간 협력모델...달빛동맹 공고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확진자들이 12일 마지막 한 가족을 끝으로 모두 퇴원해 대구로 돌아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대구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이들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와 광주공동체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모두 완치됐다.

광주공동체가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상이 부족해 치료에 애를 태우던 대구 확진자들을 광주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발표한 지 43일, 첫 대구환자가

입원한 지 40일 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절이던 지난달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통해 "대구 확진자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토록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시장은 "대구시민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방치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1980년 5월 수많은 연대의 손길들이 광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빛을 갈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별담화에는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시의회, 시교육청, 오월단체, 보훈단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 의료계 등 광주지역 각급 기관·단체들이 총망라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의 특별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대구 확진자 수용을 망설이던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퇴원 환자들은 당초 광주에 가졌던 선입견을 떨치고 고마움과 함께 광주를 다시 찾겠다는 뜻을 표실했다.

지난달 11일 첫 번째로 퇴원한 일가족 4명은 "입원 치료기간 광주 시민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정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마치 광주에서 편안한 여행하고 가는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어린 아이와 함께 광주에서 치료받아 완치돼 지난달 25일 퇴원한 또 다른 확진자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그간의 심경을 담담하게 밝혀 잔잔한 감동을 줬다.

A씨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다음날 아이까지 확진받던 날 하늘이 노랬다. 병상이 없어 며칠을 여기저기 전화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광주에서 저희 모녀를 받아주시겠다는 연락에 어린 아이를 안고 주저없이 광주까지 내달려 왔다"며 당시의 막막했던 당시 심경

을 전했다.

이어 "도착 첫날 저녁 낮은 지역에 아이와 저 단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 긴장감,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화장실에서 평평 울었다"며 "하지만 의료진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아이 장난감·인형이며 의료물품을 넣어준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이 제겐 매일 감동의 연속이었다"고 적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많은 편지와 참외상자 등이 전달됐다. 광주시에도 경북 성주침외 10상자가 배달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 학부모 봉사모임인 달서사랑봉사단은 대구를 위해 기계이 손을 내밀어 준 광주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광주광역시지원봉사센터에 성금 115만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많은 언론이 병상나눔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이들 기사에는 광주의 결정을 지지하고 평가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병상나눔은 광주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해묵은 지역감정을 완화해 영호남간에 화합과 연대의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광주-대구간의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낳겠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투표용지 검수 꼼꼼하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를 이틀 앞둔 13일 광주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북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관리 교육 후 투표용지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 광주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

###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5월1일부터 접수

광주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 확대 창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 쌀농업직불제 등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로 새롭게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의소득,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거나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법령·고시 등 행정절차가 4월까지 완료되면 5월1일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11월부터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한다.

## 동구, 제3기 청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광주 동구가 청년정책의 파트너로 활동할 제3기 청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참여·소통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관심 있는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청년정책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29일까지이며,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 소재 직장인·대학생인 만19~39세(1981~2000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72gmlduf@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광주 서구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기간을 운영,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기간에서는 소득기준 완화와 대부이율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장기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 대부이율은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며,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 남구, 행정용PC 50대 온라인 수업 지원한다

광주 남구는 코로나19로 교육 역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컴퓨터가 없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행정용 중고 컴퓨터 50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남구는 13일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행정용 중고 컴퓨터를 무상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0일부터 컴퓨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SSD(고속의 보조 기억장치) 및 윈도우 10과 아래 한글,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행정용 중고 컴퓨터 50대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 북구,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 선정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역량 제고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관련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총 5회의 컨설팅을 지원 받는다.

컨설팅은 주민자치 관련 자치단체의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조직·인력·교육 ▲우수사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광산구 살롱 드 월봉, 야간관광 100선 선정

광주 광산구의 월봉서원 '살롱 드 월봉' 프로그램이 한국관광공사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야간관광 100선은 잠재된 관광사업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새로 추진 중인 핵심사업으로, 국내 유명 야간 관광자원과 프로그램 370개 중 지자체·전문가 추천, 빅 데이터 분석을 거쳐 선정됐다.

살롱 드 월봉은 월봉서원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16세기 조선 선비의 계산풍류 문화와 18세기 프랑스 살롱 문화를 접목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문교류 마당이다.

그 내용은 차를 마시는 다담(茶談), 문화공연, 관객 참여 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삶을 담은 주제와 공감 토크로 광주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력노동자연맹연의회    한국노동총연맹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분 근무 시간엔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대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인 이혼/이혼에서 세인한 승무원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원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1배	1.77배	2.11배	2.77배	5.31배	5.31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대 157-1000